

## 2026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6. 1. 6.(화) 15:00~16:20
2. 장소 : 아주대학교 혜강관 대회의실
3. 참석위원 : 심OO 위원장, 김OO, 김OO, 김OO, 이OO, 윤OO, 정OO, 정OO, 한OO 위원  
(불참: 송OO, 김OO 위원)  
간사 : 장OO 예산팀장  
배석 : 강OO 기획처장, 예산팀 김OO

### 4. 심의 안건

- 제1호 :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 5. 회의 내용

#### 가. 성원 보고

- 위원장은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나. 심의 사항

##### ○ 심의 안건 제1호 :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은 심의 안건 제1호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은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등록금 인상률 산정 안내에 따라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3.19%로 확정되었으며, 본교는 첨단학과 증원 및 자유전공 신설 등을 반영하여 학부 등록금 인상률 2.9% 이내로 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2025학년도 학부 재학생 등록금 인상분 사용 내역 및 2026학년도 학부 재학생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계획(안)을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장학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다.
  - ☞ 예산팀장은 2026학년도에도 국가장학II 대체 장학금을 편성하고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성적장학, 복지장학 인상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 학생 위원 및 학부모 위원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 인상분에 대한 등록금 외 추가 재원 마련 계획을 질의하다.

- ☞ 예산팀장은 학부 재학생 등록금 이외에 특수대학원 활성화, 외국인 어학연수생 증가, 각종 사업 간접비 등 다각화된 수입 재원으로 이를 충당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 기획처장은 대외평가에서 본교 교육비 환원율은 3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수입 외에도 국고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구과제 수주 등을 통해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약 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유학생 등 정원의 재학생 증가가 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이 유학생 증가에 따른 강의실 등 교육인프라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다.
- ☞ 기획처장은 학교는 국제화 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의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강의실 활용 강화 및 AU50첨단융복합관 건립 등 추가 공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생 위원이 2025학년도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였는데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다.
- ☞ 기획처장은 2025학년도 16년만에 학부 등록금이 5.2% 인상되었으나 해당 금액으로 모든 어려움을 한번에 개선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부는 2026 등록금 인상폭마저 3개년 소비자 물가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사립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비 지원 및 복지 장학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 기획처장은 지속적으로 학생회와 소통하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다.
  - ☞ 예산팀장은 가계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장학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총 등록금 수입의 3% 이상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의 경우 학생회 요청에 따라 성적장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입장과 의견이 모두 다른 만큼 복지장학과 성적장학의 적정 비율 산정 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 기획처장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대상 사전 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12월 신규 총학생회 구성 후 1월 중 등록금 인상 안건 및 차년도 본예산 심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전 총학생회와 먼저 등록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이 장기간 임금인상 미반영으로 인한 교직원 인건비의 실질적 인하, AU50첨단융복합 관 건립 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 연기 등 우리 학교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전문가 위원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의 학부 등록금 인상만으로 학교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나, 학교는 학생 교육 및 실습비 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 역시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당부하다.
- 학부모 위원이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며, 재학생과 동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위원장은 심의 안건 제1호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다.
- 위원장은 투표 결과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안내하다.
- 위원장은 심의 안건 제1호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 다. 기타 의견

- 다수의 위원이 학교 및 총학생회의 신규 정책사업 추진 시 상호 소통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총장과 총학생회, 단과대학장과 단과대학 학생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

#### 라. 폐회 선언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